

‘헤어질 결심’ 韓 최다 선판매…‘기생충’ 넘었다

기생충 192개국 선판매 넘는 기록
송강호의 브로커도 170개국 이상
민고보는 명감독과 스타 배우의 힘

18일(이하 한국시
간) 제75회 칸 국제영
화제 개막과 함께 칸
필름마켓이 문을 열고 여느 때보다 뜨거
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감염병의 세
계적 유행 여파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전본시
에는 전 세계 1만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영화를 사고팔기 위해 모여들었다.

특히 이번 필름마켓은 더욱 높아진 한
국영화의 위상이 고스란히 확인되는 공
간이 되고 있다. 한류스타의 주연작과 세
계적 명성의 유명 감독 작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이전과 달리 해외 바이어들은
더욱 다양한 작품을 수급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6일까지 열리는
올해 칸 필름마켓에 판매 부스를 차린 국
내 투자배급사 NEW 김민지 실장은 “전
체적인 세일즈 금액도 상승했다”고 말
했다.

●민고 보는 배우와 감독들, 신뢰감 여전

올해 칸 필름마켓에서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영화
는 단연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
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이다. 23
일 두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CJ ENM에
따르면 ‘브로커’는 170개국 이상에 판매
됐고, ‘헤어질 결심’은 ‘기생충’의 192개
국 판매를 넘어 역대 한국영화 중 가장
많은 선판매 기록을 세웠다. ▲황금종려
상 수상 가능성 ▲세계적 명성의 스타 감
독 작품 ▲송강호·배두나·강동원(브로
커), 탕웨이(헤어질 결심) 등 해외에도 잘
알려진 출연진 등이 해외 바이어의 눈길
을 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해외에서 통해온 스타 감독과
배우들의 작품을 향한 관심도 여전했다.
‘도둑들’ ‘타짜’ 등을 만든 최동훈 감독의
판타지 SF ‘외계+인’은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를 제외한 CJ ENM 영화 중 가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발에 마련된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전경. 한쪽 벽면에 장식한 영화 ‘브로커’의 대형 포스터가 눈길을 끌면서 NEW와 CJ ENM 등(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영화 배급사 부스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2019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 수상작
‘기생충’의 박소담,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오징어게임’의 박해수가 함께 출연한 ‘유
령’, 한류스타 현빈이 주연한 ‘공조2: 인
터내셔널’ 등도 해외 바이어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주연 이정재가 연출·주
연해 올해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
리닝 부문에서 선보인 ‘헌트’도 쏠쏠한 제
미를 보고 있다.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한
세진 팀장은 “‘오징어게임’ 이후 이정재
의 작품을 찾는 바이어가 확실히 급증했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어들이 한
류스타 송중기의 주연작 ‘보고타’에도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판매국 늘어나 장르 폭도 넓어졌다

스타 감독과 배우들의 작품만 있는 게
아니다. 영화의 외형적 규모나 스타급 제
작진 작품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이야기
가 해외의 시선을 끌고 있다.

중고품 거래를 하는 여성이 겪는 섬뜩
한 일을 그린 신혜선 주연의 ‘타겟’, ‘오
징어게임’의 조연 김주령이 주연한 공포
영화 ‘늑장가든’ 등이다. 특히 ‘늑장가
든’은 아직 촬영 전임에도 김주령에 대
한 해외 시선에 힘입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늑장가든’의 해외 세일즈를 맡고
있는 케이무비엔터테인먼트의 김지연 팀
장은 “이정재뿐 아니라 ‘오징어게임’ 출
연자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보장
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J ENM 윤인호 팀장은 “스타급 배
우와 감독이 참여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스토리만으로도 선풍 구매하는 바이어
가 대거 늘었다.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
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가 확인되는 대



목’이라고 설명했다.

칸 필름마켓을 찾은 한국영화 관계자
들은 그동안 한국영화의 주요 시장으로
꼽혀온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또 다른 지
역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윤 팀장은 “특히 남미 국가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면서 “과거 액션 장르에 집
중됐던 시선이 스릴러나 드라마 등으로
도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칸 국제영화제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3

〈영화 ‘헤어질 결심’ 엔딩 크레딧곡〉

정훈희·송창식이 직접 부른 ‘안개’ 박찬욱 감독 “평생 꿈이 이뤄졌다”

가수 정훈희와 송창식이 박찬욱 감독과 마음을 모아
화제다. 23일(이하 현재시간) 칸에서 만난 한국영화 관
계자들에 따르면 정훈희와 송창식은 제75회 칸 국제영
화제 경쟁부문 상영작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의
엔딩 크레딧곡 ‘안개’를 함께 불렀다. 박 감독이 정훈희
의 1967년 노래 ‘안개’에서 이야기의 영감을 얻은 데 따
른 의기투합이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번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박
해일)가 사망자의 아내(탕웨이)를 의심하면서도 그에게
관심을 느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박찬욱 감독은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 인터뷰에서 “영
화 전체적으로 정훈희의 노래를 썼다”면서 “어릴 때부
터 좋아한 노래를 작품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창식이 1975년 ‘안개’를 다시 부른
사실을 떠올리며 두 가수가 부른 새로운 노래를 삽입한
다면 “정말 멋진 것”이라는 생각에 성사시켰다.

박 감독은 할리우드 리포터에서 “두 분은 제 평생의
영웅이다. 그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순간은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의 평생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감독과 두 사람은 24일 이번 영화제 메인 무
대인 칸 펠레 데 페스티발의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헤어
질 결심’을 공식 상영하고 노래를 공개한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한국적 색채 담으면 ‘케이 무비’라 불러야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한국을 담은 해외작품·협업 늘어나
할리우드 리포터 “한국영화 부흥기”

“이제 ‘케이(K) 무비’라 불러야 맞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를 찾은 영화진흥위
원회 박기용 위원장의 말이다. 한국 자본
과 제작진이 만들어진 ‘한국영화’라는, 단
순한 국적 개념을 넘어 이제 다양한 방식으
로 ‘한국’을 담아내는 영화의 시대라는 의
미이다. 해외 제작진과 협업은 물론 한국
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 해외 작품도 늘
어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올해 칸 국제영
화제는 그 뚜렷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무대
이다.

경쟁부문 초청작 ‘헤어질 결심’과 ‘브로
커’는 한국 제작진과 해외 스태프의 협업
으로 완성된 대표적 작품이다. 칸에서 23
일(이하 한국시간) 첫 공개되는 박찬욱 감
독의 ‘헤어질 결심’은 중국영화 ‘색, 계’ 등
과 함께 한국영화 ‘만주’ 등을 통해 국내 팬
들에게도 인기 높은 중국배우 탕웨이의 주
연작이다. 일부 스태프는 할리우드 출신이
기도 하다. 27일 선보이는 ‘브로커’는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송강호·강동원
·아이유 등 한국배우 및 스태프와 함께 한
국 자본으로 촬영했다.

재능 있는 젊은 감독들의 독창적 작품을
소개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상영작인
프랑스영화 ‘리턴 투 서울’도 비슷하다. 데
이비 추 감독 등 프랑스는 물론 미국, 벨기
에 등 다국적 제작진이 오폭목, 김선영 등
한국배우와 손잡았다. 프랑스에 입양된 한
국 입양아가 모국에서 친부모를 만나게 되
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한국에서 올로케
이선했다. 캄보디아계 데이비 추 감독은 “홍
상수·이창동·봉준호 등 한국 감독들에게
경외감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칸 국제영화제 소식지 할리우드 리포터
는 “한국영화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O
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의 인기
로 인해 위기를 맞았지만 올해 해외 협업을
통해 완성한 콘텐츠로 다시 부흥기를 맞
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라이어리도 ‘해
외 제작진과 손잡고 만든 작품들을 통해
한국영화가 더 세계적 품미를 가질 것’이
라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영화가 해외 인재들을 흡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이제 한국적
색채를 가진 모든 영화를 포함하는 ‘케이
(K) 무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
합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칸) | 이승미 기자

